

2013년 군 특성화반 현장실습 소감문

현장실습 소감문

장소 : 공군 82 · 86항공정비창

일자 : 2013년 4월11일(목)

대상 : 84명

참여 : 84명

강호항공고등학교

2013년 군 특성화반 현장실습 소감문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강영경
장소	공군 82 · 86항공정비창	학번	3401

소감 내용

아침 6시 버스를 타기 위해 5시에 일어나 '잠깐 쉬는 버스'를 타면 8시 간 타고다니 왕복 2회 깨어나니 1시 서산에 도착하여 가보니 그 크기가 정말 광속 전투비행기 어마어마하 크기였다 거기 내부에 계승하며 정비사이며 몸집이 커 정말 색다른 평범한 모든 것들에 관념을 깨며 하늘의 파워풀한 C-130을 이 두눈으로 직접 마주해보니 그 크기에 한 번 놀라웠다 그 실내에는 덩크 2대 혹은 1대 즉 올라가는 2대 윗바퀴는 1대 그 전차는 속속한 다는 거에 놀라기도 했고 실내에 화살표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이 크기에 다들 반 내내로 만져서 보면 속내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이어서 F-15, F-16도 만났는데 거진 만났다고 F-16은 T-50이랑 화살표가 있고 봐도 특이한 것은 제 엔진도 4개 스크롤도 옆에 있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항공기들도 F-16 정도는 만들수 있다는 거에 대해 여러번 부딪혔을 느꼈다. 특히 F-15는 F-16보다 많이 만져볼 수 있었다 마치 F-16을 1.5배? 늘려 붙인 크기였다 우리나라 대양 2천 여이나 하는 전투기를 내놓고 아군도 가솔이 버렸다 그리고 다양한 정비법들을 보았다 지상에서 정지한 여정비행기 때 기체의 이상을 보는데 지상에서 조종해서 가능해서도 가능하고 6개월 동안 정비작업을 한 다음도 양식 되고 페인트를 다 벗겨 재도색하는 것까지 우리나라 공군에 대한 자부심의 한층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 나도 자랑스러운 공군이 될 것이다.

비고

강호항공고등학교

2013년 군 특성화반 현장실습 소감문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송인재
장소	공군 82 · 86항공정비창	학번	3413

소감 내용

위 강호항공고등학교 특성화 6개반 서산 공군 82 86 정비창으로 현장실습을 다녀왔다. 45 개교차로 86 정비창으로 7만 전차로 86 정비창으로 갔다. 나는 거기서 86 정비창에 갔다. 86 정비창은 지난 주에 갔던 82 정비창과 비교하면 꽤나 느낌이 달랐다. 정비창이 들어서자마자 F-16 기체를 정비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또한 F-15 전투기도 한 대 있었다. 그리고 작살을 떼서 정비할 항공기 근처로 가서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문을 던졌다. 정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항공기 도장작업으로 갔었다.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작업장은 밖과 달리 따뜻했다. 그리고 카피는 페인트가 묻어있고 비닐로 덮여있었다. 카피는 비닐로 덮여있었다. 그리고 작업장에 갔다. 작업장은 작업장이 모든 일면이지만 특별히 82 정비창으로 돌아왔다. 정비창 안쪽에 소파를 배치하는 등 신기했다. 그리고 다시 항공기 안에서 F-16이 어떻게 비행하는지 사정을 질문했다. 사정을 항공기에게 반쯤 알았지만 모든 문항은 반쯤 알았다. 그리고 C-130 수송기 보았다. 정비하고 항공기 옆에 5분간 비행기 작업이든 거의 없게 있었고 낮에는 다른 항공기에 비해 간단해보였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마쳤다. 내가 보기에서 다녔던 현장실습을 가장 알리고 계신 현장실습이었다. 직접 보니 정말 배운 점이 많았다. 이번에는 가장.

비고

강호항공고등학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온
것이다. 부끄러움.

2013년 군 특성화반 현장실습 소감문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신용준
장소	공군 82 · 86항공정비창	학번	3414

소감 내용

나는 서산에 있는 정비창에 가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 일단 서산 정비창은 너무 넓었다. 그 전 주에 가본 곳보다 훨씬 넓었다. 그래서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며 다녔다. 일단 가보니 역시 비행장이라 그런지 정비장이 많이 수 많은 전투기와 수송기가 있었다. 가솔의 여러대를 다녀왔다. 비행기 도장작업도 보고 분해작업도 보았다. 그리고 비행기의 정비 작업도 보았다. 애초에 정비장을 보았을 때 그 규모를 항공기를 알았다. 1보도 매우 큰 정비창이라 한 걸음도 비행기가 걸렸고 들어가는 것도 보였다. 신기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 어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배경삼아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여러번 시도를 했으나 결국엔 작렬한 비행기가 파리에 처참하게. 그리고 나는 비행장 가기전에 비행기 제작작업을 꼭 보고 싶어 하겠다. 그 당시엔 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F-16을 타보았다. 매우 탁월한 느낌이었다. 편안한 카피를 들었었다. 그리고 B-1을 타보았다. 생각보다 작아 보였다. 그리고 군용기라는 것만으로도 봤는데 정말 민간항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작인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 후 나중에 그 길에 대해 찾아보고 싶다. 정말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인이자 머릿도 기를 수 있고 매우 자랑스러운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고

강호항공고등학교

[illegible]

강호항공고등학교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신희민
장소	공군 82·86항공정비창	학번	3416
<p style="text-align: center;">소감 내용</p> <p>서산 비행장에서 우리는 86정비장을 갔다. 전자과와 전자공은 82정비장을 갔다. 86 비행장에서 4번은 기체만, 5번은 기체만오라 나중에 실습을 했다. 그리고 수송기 4000 C130도 보고 전동기 F15, F16도 보았다. 그리고 조종장, 제1정비창, 제2정비창 등을 다니며 제 형제들 BXS가 보았다. 지난편의 광우마을을 완전히 다다라. 광우가 형제들과만 서산은 마치 애취마노 같았다. 끝날에 들지 않았는데 F-16도 정비하는 것을 보았다. 비행기 안에 우회벽도 그리고 작별하고 분담하여 학편하는 모험을 50정비장 신기하고 나노 배리 문근에 입대하여 작별과 주 한명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튿날 F-15기종도 잠깐보았지만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격납고에서 C130기종을 조립하는 것을 보았다. 내부구조도 보았고 날개도 가까이서 보았다. 리베이트를 보도 잠깐 살펴보고 작지 않았고 깨끗하고 좋았다. 그리고 점심식사할 때 함께 배만 잊었다. 점심은 배부르게 먹고 활주로로 나가서 F-16탈리가 이륙하는 것을 보다가 F-16 F-16을 배격조 사건도 찍었다. 정박 실험서 이전 기체가 주어진다는 것이 정박 기종도 다시 한번 군복 반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번의 현직자들이 정박 기체에도 꼭 참가하기를 하고싶다.</p>			
비고			

강호항공고등학교

[illegible]

강호항공고등학교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전성봉
장소	공군 82·86항공정비창	학번	3423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내용</p> <p>2013년 4월 4일에 공주 제1전투비행단에 대령으로 취임해서 있는 것다운곳인 공군 82·86항공정비창이다. 서산에 있는 곳인데 처음 서산에 도착하여 부대로 들어갈때 공주와 크나 건물들도 비슷할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엄청나게 컸다. 공주에서 뭘을 하는지 자세한 이동하는 준비는 많았지만 서산은 저물까지 변한 많이 없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주에서 볼수 없었던 비행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C-130 이라고 하는 대형 수송기인데 아직 원형만 만들어 지지 않았지만 그대도 정말 고고 웅장했다. C-130 수송기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 넓었다. 비행기와 대령기가 있었고 개머리도 있거 다. 또 엔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F-16 전투기도 있었다. 정말 멋있었다. F-16의 구조 용무도 하고 정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궁금한것도 물어보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F-16 전투기가 뜨는것은 비록 눈앞에서 보았는데 정말 멋있었다. 사진도 찍었는데 국가 보안책 때문에 아직까지 사진은 낼지 못하고 있는데 비록 사진은 받았으면서 주었다.</p>			
비고			

강호항공고등학교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김 선 응
장소	공군 82 · 86항공정비창	학번	3504

[illegible]

강호항공고등학교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박진석
장소	공군 82·86함공정비창	학번	3513

4는 4월 11일 일요일 샌프란시스코: 86 항공관제반에 다녀왔다.
우리는 도착한 전직공인 기체와도 4는 또다르게 봐왔다.
기체번호는 5번은 720, 6번은 7200으로 나타났다.
4는 평소 개비로만 720에 개비로만 720으로 왔는데, 같은 날인
720은, 개비 수직으로 항공관제반으로 갔다.
개비 들어오는 Back to the Basics 라는
공부를 보았다. 아직도 비행관제반 720에 충성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되었다. 다음에 개비로만 720으로 왔고
기체와도 720으로 개비로만 720으로 들어왔다.
개비 개비로만 720으로 개비로만 720으로
영어를 열심하고도 일출하였다. 86은 항공관제반 같다.
개비 HUGA HUGA 720으로 개비로만 720으로
일출하였다. 비행관제반 720으로 개비로만 720으로
일출하였다. 86은 개비로만 720으로
비행관제반 같다.

강호항공고등학교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정영준
장소	공군 82·86항공정비창	학번	3524

[illegible]

강원대학교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이건호
장소	공군 82·86함공정비창	학번	3518

나는 사월 월말 30년 공은 82.8%로 공백이 아니었다. 모든
주요한 기거하고 전과로는 따로 자게 되었다. 그리고 개교도 제법 거만하
도록 바뀌었는데 나는 전과로 가게 되었다. 같은 편에서 처음으로 한 번
아름답게 보았다. 아들은 전과 열리다 새끼를 낳고 무모하고도 호전적이고
심할 줄 모르는 말쑥한 사람이 되어 아들이 공백을 찾아 생애의 길에 걸려들었다.
살롱 두어 개가 되었다. 그래도 조현호는 공백 내내 재해석해 프랜차이즈
있다고 하더라도 세련되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술맛이나 고기 맛과 점수
적으려 하는 꼴에 어쩔새로 도둑 바를 하고 다니느라 고래가 되었나
그리고 난 서인 공은 82.8%로 공백을 잡았을 절친 공백 잃어서
도복바를 타고 다닌다고 들었다. 그래서 공백에게 나가고 싶었다. 처음
도복바를 타고 나니 입에서 뚝뚝하게 나온 건 눈물과 함께 나왔다. 그리고
밤을 한 끼고 자들을 몰래 애까지 주고 한 바와 이것저것 모두
보여 주었다. 그때 Hush House 보았노. Hush House는 흔히
점원 두서너개 일만하게 짜였다. 그는 사실 82.8% 한공 공백이
다녀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일러두어 공백으로 공백을 안
이었다고 알고 있었노. 특히 다룬다면 한번 더 가서
기재 반를 보고 싶었노.

강호항공고등학교

2013년 군 특성화반 현장실습 소감문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기 ¹ 민 ²
장소	공군 82·86항공정비창	학번	3106
<p style="text-align: center;">소감 내용</p> <p>참상사범이 위치할 제20전투비행단에 실습하게 되었다 비행단 이너뷰에 여러 비행팀이 있었고 그중 디카와타 나이프팀을 보고 12명과 가까운 인원들만 사찰했다. 대부분 전차 기사는 비하고 미려서 동영하기만 하여 모두 영리도이며 영어나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만났었다.</p> <p>다음 신상사범과 복록사범에 고관받으며 여러 질문을 했다 관급장사범에서부터 하위관급들을 다뤄 얘기하곤 있었고 특히 이기호를 포함하면 요즘 군대가 매우 좋아지고는 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많은 나이에 젊은 형제들이 많았다는 걸 느꼈다. 제 86 항공정비창에 대한 개념도 비행단 비행단에 있던 비행팀과 다른 느낌이니 미래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기 같았다. 앞으로 영리도 열심히 하여 좋은 능력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니 만일성 한 가지의 길을 보기가 좋았다고 자살을 믿고 여러날 잘게 보든 더 믿어 갔다.</p>			
<p>비고</p>			

2013년 군 특성화반 현장실습 소감문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u>유승</u>
장소	공군 82 · 86항공정비창	학번 <u>3718</u>
소감 내용		
<p>3학년이 되고 2번째 간송이다 이번 실습을 통해 서산이란데도 알게 되었고 항공전자가 여러군 간지 깨달았다 처음에 가자마자 상사님이 쫓아도 해가 시고 항공전자에 대해 환한 열의라든가 뭐고 고지 나 설명해주 시었는데 거의 하나도 못 알아들었 던 것 같다 그리고 밥을 먹고 실습 시작전 족구 도하고 피삭도 하고 재미있었다 구두신고해서 2학년 밖에 못참여 많이 참했다 그후 본격적인 실습을 했는데 장비가 우리나라 한대 밖에 없고 기계가 다 몇몇 ~ 몇몇 리어서 진짜 옆에서 막 소리가 났다 또 그전자기기를 만질때 그전에 끝판 파란반트를 줬다 왜 차츰나 왜 뭘더니 그냥 맨 손으로 만지다가 정전기가 생기면 고장 나니 정전기 방지용이라 했다 또 빨리 실습 나기위해서 또 가 보고 싶다</p>		
비고		

광호항공고등학교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김현우
장소	공군 82·86항공정비창	학번	3710
<p style="text-align: center;">소감 내용</p> <p>이전에 귀하를 방문 한 후 5년에 있는 제20정투배병단 에 갔다. 이번엔 전차와 기차가 따로 다닌다고 해서 '아 이번엔 전차쪽만 배워왔다' 하고 기대하였다. 학교생때의 전차쪽 공인분이 연필가다롭다고 해서 가장있는데 전혀 경직 않고 재미있어서 좋았다. 전차장비들을 구경하고 군부대에서 전차쪽 사람들이 부엌을 하느라 작았다. 학교에서 부엌 기구라는 차원이 많았다. 신음지만 배가 허사가 되서 그냥은 하제 되면 있었고, 재미있어서 좋았다. 가서 신하 귀하진 신배를 만나 신배비 P이 가서 먹을거 양한 사귀어서 좋았다. 음식의 관주보다 신하에 가서 배운게 많았더라 같다. 광주는 기계 쪽으로만 해서 전차와 이원 두데게 흥미있었음은, 이득은 배워가 갔다. 신하 전차쪽은 배워보고 와서 이득이 참 많았다. 전차만 끌어서 자바를 보려있었던 거 같다</p>			
<p>비고</p>			

2013년 군 특성화반 현장실습 소감문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이 지용
장소	공군 82 · 86항공정비창	학번	3719
소감 내용			
<p>이번에 사상으로 현장 실습을 갔다. 장소는 공군 82·86항공정비창에서 86항공정비창에서 기계제와 나누어서 실습을 하게 되었다.</p> <p>많은 실습을 하게 됐는데 특히 기계제 작업장에서 신발에 먼지를 끼고 들어갔다. 처음에는 사상부에서 86항공정비창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작업장들을 보여주었다. 오전에는 이론을 하고 오후에 실습을 하고 있었다. 사상부에서 만든 것으로 이론을 배우고 정교시간을 준비 주었고 정찰을 먹으러 갔다.</p> <p>정찰 점심은 정찰에서 나왔지만 맛없었다. 이런 것들만 나는 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오후에는 정찰에서 기계제에 대한 설명을 청문한 후에 그리고 반 분씩 나눠 실습을 하게 되었다. 실습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조금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 책에 있는 설명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있다. 그러면서 사상부에서 영어교본을 읽어 주고 있었다. 거기에서 각각 돌아가 영어관공, 다역함하바졌고 도약 400~500점수를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렵지 않고 해주었다. 또 다른 실습에서는 정찰실에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계제 하는지 정찰을 하는 하였다. 정찰하여 검사하자 나한테 그걸 보라는 말이었다. 그 후에 정찰관을 계속 하라는 것을 안 것 같았다.</p>			
비고			

강화항공고등학교

[illegible]

일자	2013년 4월 11일	성명	윤희 지용
장소	공군 82·86항공정비창	학인	3719
<p style="text-align: center;">소감 내용</p> <p>이번에 사상으로 헌장 삶을 보았다. 장소는 공군공 82·86항공정비창에서 86 항공공제회에서 기거하고 나중에 삶을 하게 되었다.</p> <p>일반 생활을 할 줄은 모르는데 습관처럼 잘살았어서 신분이 무엇이고 줄이 없다. 처음에는 산사봉에서 86항공정비창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을 보아주었다. 그리고 5월 한 세간들을 보아주는데 2년간은 이윤을 하고 오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산사봉에서 만든 것으로 돈을 벌고 장로 사신들 장로 주교 집사를 먹여주었다.</p> <p>장로 집사 한에서 나뉘면 많았었다. 이런 것을 보면 나는 군대에 들어와서 많은 것 같아졌다. 오해는 군사봉에서 기거에 대한 설명을 컴퓨터로 보여주고 반 분씩 나눠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활함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조금만 하면 되어졌는데 그해에 있는 생활당이 모두 먹어 버렸다. 그러면서 산사봉에서 명아줄을 팔고 주교를 배워 알았다. 여기에서 각종 병자 영사 장교를 더 열심히 해야 했고, 도약 400~500점 이상을 알아야 되고 했는데 어렵지 않게 구구했다. 또 다른 생활기사는 장로 장로봉에서 서명을 해주었는데 어떤 부분을 기거 해주면 장교를 하게 되었다. 컴퓨터로 검사 결과 나 있는데 그 결과 100% 맞았다. 100%라서 영사 관을 계속 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p>			
비고			

공군 82/86 항공정비장 현장실습



정비장 항공기 장비 및 부품 점검절차 실습

[2013.04.11]



정비장 입. 출고 절차설명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



장비에 대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



항공기 부품 설명



매뉴얼 절차대한 설명



학생들이 직접 실습